

## K-컬처 랜드마크, 서울 남산

### Namsan in Seoul as a K-Culture Landmark

이세인\*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은 조선 건국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이자 문화공간이다. 조선시대의 남산은 북악산, 인왕산, 낙산과 함께 한양을 둘러싼 내사산(內四山)의 하나로서, 도성(都城)의 남쪽 기운을 지키는 수호산(守護山)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왔다.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남산은 조선 왕조의 국운(國運)과 도성을 함께 주관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사당(國祀堂), 임진왜란 이후에는 관우(關羽)를 모신 관왕묘(關王廟), 그리고 한국의 무속(巫俗) 신앙의 제단이 남산 곳곳에 들어섰다.

한편 남산은 수도를 방어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 초기에는 봉수대(烽燧臺)가 설치되어, 국가의 위기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정보 관제 센터’의 역할도 했다.

근현대사에서 남산은 또 다른 역사



〈사진 1〉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출처: 서울시청)

\*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의 문화관, 현대문학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e2nee@hanmail.net

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이 바로 남산에 건립되면서, 일제 식민 지배의 상징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해방을 맞이하면서 조선신궁을 비롯한 식민 지배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고, 남산은 점차 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남산에 남산도서관, 남산공원, 서울타워 등이 세워지고, 한양도성과 봉수대 유적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남산이 다시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남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명동(明洞)을 비롯한 다양한 도심 상권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서울의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다. 남산에서부터 명동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높은 접근성 덕에 서울 곳곳의 면모를 파악하기에 좋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남산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필수 관광지이자 포토 스팟’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K-컬처 랜드마크’를 대표하는 남산의 즐길 거리를 축제, 맛집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K-컬처 랜드마크’ 남산의 주요 축제

계절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풍경과 감성을 자아내는 남산의 축제는 도심 속 전통문화의 자연 무대로 기능한다. 봄이 되면 남산 전역에 벚꽃이 만개하고, 벚꽃길은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장대한 벚꽃 터널을 이루어 자연 자체가 하나의 축제가 된다. 이 시기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단오를 맞아 창포물에 머리 감기, 부채 만들기 등 전통 세시풍속 체험을 운영하며, 봄의 생동감과 우리 고유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여름에는 남산의 밤이 공연과 체험으로 채워진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남산 야광명월’은 여름밤을 대표하는 국악 공연으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한복체험, 다도,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며 무더위 속에서도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다.

가을이 찾아오면 남산은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남산둘레길 가을소풍’에서는 단풍 투어와 공예, 가드닝 체험이 진행되고, 도깨비를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체험 등 ‘서울 남산 도깨비 축제’가 펼쳐진다. 또한 명절 기간에는 시민 참여형 전통명절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남산골 한가위 축제’가 열린다. 서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참여하는 ‘서울무형문화축제’는 전통공연과 시연을 통해 남산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든다.

더불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개최하는 ‘남산 페스티벌’은 음악과 와인이 어우러진 행사로 가을의 남산을 더욱 감성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남산의 겨울은 고즈넉함과 전통, 그리고 감성이 결합된 독특한 계절 문화를 보여준다. ‘해치의 겨울 정원여행’은 남산공원과 서울 주요 공원을 잇는 겨울 테마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중 가장 차분한 분위기에서 남산을

색다르게 경험하게 한다. 남산골한옥마을의 ‘겨울온기’ 프로그램은 전통 난방문화, 겨울 음식, 공예 체험 등을 통해 뚜렷한 계절감 속에서 일상과 전통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매일 오후 3시(월요일 제외) 봉수군 재현과 전통공연 등 남산 봉수대의 봉화의식이 더해지며, 역사적 상징성에 깊이를 더한다.

아울러 남산에는 국립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한국 공연문화의 중심지이다. 전통예술부터 현대무용, 연극, 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국립극장은, 남산이 휴식, 산책, 관람, 관광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문화적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2〉 서울 남산의 축제(출처: 서울시청)

## 2. K-컬처 음식 문화의 매개, 남산 근처의 먹거리 맛집

남산은 주변 지역과 하나의 생활, 문화권을 이루는 ‘도심 미식 지대’이기도 하다. 남산 자락과 인접한 장충동, 을지로, 동대입구, 필동, 충무로 일대, 그리고 지하철 한두 정거장 거리의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동대문 인근 세계음식 거리는 남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음식문화 축을 형성한다. 전통과 근현대의 맛, 서민적인 골목음식 그리고 공연, 관광이 결합된 외식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식문화의 축소판’인 셈이다.

무엇보다 남산 동쪽에 위치한 장충동 일대에는 대표적인 족발 맛집이 즐비해 있다. 1960~70년대부터 형성된 장충동 족발 거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양념 맛으로 현재까지



〈사진 3〉 장충동 족발 골목 입구(출처: 서울시청)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이해랑예술극장 등 남산 동쪽 공연·문화시설이 밀집한 지형과 맞물려, 장충동 족발은 공연 관람 전후 ‘필수 미식 코스’로 인식된다. ‘장충동 족발’이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는 점에서, 장충동은 남산권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코드를 형성한다. 족발이라는 음식은 본래 돼지 족부(足部)를 삶고 양념하여 즐기는 서민적인 음식이었지만, 장충동 문화거리와 결합하면서 남산 일대의 도시문화적 미식 경험으로 재구성되었다.

을지로, 장충동, 동대입구, 필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냉면 명가들이 밀집해 있다. 평양식과 서울식 냉면의 공존은 독특한 ‘맛의 지형’을 이룬다고 봐도 좋다. 해방 이후 정착한 평양 출신 장인들의 기술과 비법이 이 일대에 뿌리내리면서, 담백한 육수 중심의 평양식 냉면, 그리고 다소 진한 양념에 개운한 맛을 강조하는 서울식 냉면이 동시에 발전해 왔다. 그 결과 남산 주변 냉면집들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줄 서서 찾는 외식공간이 되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물론 겨울철 뜨거운 육수를 곁들여 먹는 냉면까지 포함해 ‘사계절 남산 음식 풍경’을 구성한다. 이처럼 남산 일대 냉면 문화는 한 끼 식사 이상으로 분단과 이주의 역사, 서울 도심의 재편 과정이 응축된 역사적 미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인근의 태극당은 1946년에 문을 연 서울의 대표적인 제과 노포로, 남산의 역사성과 서울 근현대 도시문화의 감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모나카, 옛날 도넛, 버터크림 케이크, 쇼트케이크 등 태극당 특유의 클래식 메뉴는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으며, 남산을 찾는 이들이 산책을 마치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디저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인근 동대입구, 장충동, 필동 일대는 전통 한식당, 오래된 중국요릿집, 소규모 카페, 청년 셰프들이 운영하는 개성 있는 식당이 골목 곳곳에 들어서면서, 오랜 지역적 전통과 새로운 미식 트렌드가 공존하는 도시적 미식 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의 역동성과 남산 자락 특유의 정취가 중첩되면서, 남산권의 역사성, 청년문화, 로컬리티라는 다양한 층위가 ‘맛’을 매개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미식 벨트는 장충동과 동대입구, 필동을 지나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동대문 일대

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20세기 후반부터 분식 문화를 상징해온 특별한 장소이다. 즉석떡볶이와 튀김, 라면, 순대 등이 한데 어우러진 서민적 식문화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골목이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운동장 자리의 재개발 이후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와 인근 상권은 패션, 디자인, 관광이라는 소비 트렌드와 더불어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한 또 다른 미식 거점으로 성장했다. 이처럼 남산에서 장충동과 동대입구, 신당동,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식 네트워크는 남산이라는 지리적 중심을 기준으로 전통 제과, 족발, 냉면, 분식과 같은 여러 음식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불러 모은다.

결국 남산의 먹거리는 남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왕돈까스를 비롯하여 남산 자락에 위치한 음식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충동 족발 거리, 냉면 명가 밀집지, 태극당과 동국대 주변 골목,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동대문 일대 맛집으로 이어지는 남산 생활권 속에서 이해될 때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 남산을 중심으로 한 이 식문화 벨트는,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찾는 음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공연·관광과 결합된 외식 경험, 세대를 관통하는 추억의 맛과 새로운 미식 트렌드까지 한데 모으는 ‘K-컬처 랜드마크 남산’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 3. K-컬처 랜드마크로서의 ‘남산’

이와 같이 남산은 한국의 역사, 신앙, 기억이 응축된 장소로서, 사계절 내내 공연과 축제가 이루어지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중심지이다. 도심 음식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는 다양한 미식 문화는 여기에 더 큰 매력을 더한다. 오늘날 남산은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다. 남산이 서울을 조망하는 시각적 상징이자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경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남산의 위상은 주변 도심지와 긴밀한 연결성에서도 확인된다. 남산 북쪽 자락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인 명동과 직접 이어져 있어, 남산 방문은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명동과 을지로 일대의 관광 경험으로 인도한다. 명동 거리를 거쳐 남산으로 오르는 길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이동 루트 중 하나이다. 이 경로는 서울의 첨단 도시문화와 전통적 경관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 동선이기 때문이다.



〈사진 4〉 서울의 명동 거리(출처: 서울시청)

또한 남산골한옥마을, 서울타워, 국립극장 등 주요 시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도보 중심 관광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K-컬처 랜드마크로서 남산의 매력을 키우는 요소다. 이러한 공간적 연속성은 단순한 공원이나 역사 유적이 아니라, 명동-을지로-장충동-동대문으로 이어지는 도시문화를 매개하는

공간으로서 남산의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남산의 장소성은 단일한 시대나 문화적 기능으로 환원될 수 없다. 조선시대에서부터 식민지 시기, 해방기를 지나 근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남산은 시민이 편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되었고, 오늘날에는 공연예술, 전통문화, 도시 미식, 글로벌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복합 문화의 중추로 기능하고 있다. 아름다운 역사와 자연, 그리고 도시 문화가 중첩된 남산은 입체적 역사문화공간이자, 한국을 오감으로 경험하도록 해주는 대표적 K-컬처 랜드마크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K-컬처 랜드마크인 남산에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12월에 발표했다. 연간 1100만 명이 방문하는 남산에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앞으로 새 단장할 명동의 미래가 기대된다.